

보도 일시	2023. 3. 6.(월) 조간 2023. 3. 5.(일) 11:00	배포 일시	2023. 3. 3.(금) 오후
담당 부서	항만국 항만개발과	책임자	과 장 김규섭 (044-200-5930)
		담당자	사무관 김기현 (044-200-5937)

새만금신항 운영을 위한 첫 도로를 건설한다

- 해양수산부,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발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새만금신항과 육지를 연결하여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첫 도로인 '새만금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이하 도로개설사업)'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지역 최대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40년까지 대형부두 총 9선석* 운영을 목표로 지난 2022년 11월 잡화부두 2선석 착조 본공사에 착수하였으며 진입항로 준설, 방파제 연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다.

* 2조 8,231억원 / 호안 16.3km, 잡화 6선석, '칸' 1선석, 자동차 1선석, 크루즈 1선석 등 / '19~'40

새만금신항은 원활한 해수소통 등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국내 최초 인공섬식 형태로 개발 중으로 부두 운영을 위해서는 항만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 형태의 진입도로 확보가 필수적이나 현재는 공사용 목적의 임시 2차로 교량만이 2019년 12월부터 개설되어 사용 중에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산업단지 등의 수출입 화물이 신항만을 통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와 신항만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을 발주한다. 금번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원이며, 국도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금번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 진입도로가 2025년 12월에 완공되면 하루 최대 2,644대의 화물차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만금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새만금 신항 최초의 도로 개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향후 새만금신항 터미널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 교역·교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새만금 방조제와 새만금 신항간 주진입로 개선 및 접안 시설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내부도로 건설 추진
- (사업규모) 진입도로 702m, 내부도로 1,636m, 전기공 1식 등
- (총사업비/사업기간) 994억 원 / '21. ~ '25.

□ 계획평면도 등

